

C4IR KOREA · WEF 하계 다보스 2026 동향보고

하계 다보스 2026의 신호, 경기도 기업지원 자산으로

WEF 하계 다보스(다렌) 핵심 동향과 경기도·한국 시사점

보고일자	2026. 6. 29. (월)	문서구분	동향·인사이트 보고
행사	WEF 하계 다보스포럼 (제17회 뉴츠펀 연차총회·AMNC)	일시·장소	2026. 6. 23.~25. / 중국 다렌
주제	‘대규모 혁신(Innovating at Scale)’	작성	C4IR Korea

90여 개국 참가국	2,000여 명 참가 인원	3 → 5개사 한국 테크 파이오니어 · 역대 최다	2곳 경기도 기업 선정
---------------	-------------------	-----------------------------------	-----------------

성과 전년 3개사 → 올해 5개사 역대 최다, GBSA·C4IR Korea의 지원·글로벌 네트워크가 이끈 성과.

※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는 WEF가 매년 약 100개사를 선정하며, 과거 구글·에어비앤비·스포티파이 등이 선정된 바 있음.

I 핵심 요약

이번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논의된 글로벌 의제는 **경기도 기업지원·정책기획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C4IR Korea(국내 유일의 WEF 공식 파트너 센터)가 현장에서 이를 직접 확인했다.

Executive Summary

- 동향 ①** 다보스의 일관된 결론은 ‘대규모 혁신’ — 기술 ‘보유’가 아니라 실물경제로의 ‘전환’ 역량이 경쟁력을 가름. AI 거버넌스 분열(EU·미국·중국 3분화)과 함께, 실업의 원인을 AI가 아닌 기술격차로 보는 노동 의제가 부각됨.
- 동향 ②** WEF가 2026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 100개사 발표 — ‘AI가 소자본·소인력 창업을 가능케 했다’는 흐름 속에 한국 5개사 선정(전년 3개사 → 확대), 특히 **경기도 기업 2곳(안산 에이로봇·성남 비트센싱)**이 포함됨.
- 시사점** 경기도 기업지원의 초점이 '기술 확보'에서 **실증·확산·사업화**로 옮겨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딥테크의 약진은 도내 딥테크 발굴·육성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II 핵심 동향 ① · 하계 다보스(다렌) 폐막 — ‘대규모 혁신’

- 6월 23~25일 90여 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한 제17회 다렌 뉴챔피언 연차총회가 폐막함.
- 핵심 결론은 ‘기술 잠재력과 실물경제 성과의 격차 해소’ — 기술 보유가 아니라 현장 적용·전환 역량이 경쟁력을 가름.
- 또한 AI 거버넌스 분열(EU 규제 중심 · 미국 시장 자율 · 중국 개발·안보 균형의 3분화)과, 실업의 원인을 AI가 아닌 기술격차(skills gap)로 보는 노동 의제가 부각됨.

▶ 경기도 · 한국 시사점

도내 기업의 핵심 과제는 기술 '보유'가 아니라 '현장 적용·전환' 역량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경기도 기업지원의 초점도 실증·확산·사업화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아울러 AI 규제 3분화에 따라 도내 기업이 해외 협력 시 권역별 규제 정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출처 — WEF 보도자료(Summer Davos Concludes in Dalian) · CGTN 핵심 정리

III 핵심 동향 ② · WEF 2026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 100개사 발표

- 핵융합·달 자원 채굴·신경외과 로봇 등 첨단 분야 23개국 100개사 선정. 올해 선정 기업군의 핵심 축은 ‘AI 인프라’와 ‘자율 AI 에이전트 생태계’임.
- AI가 초기 스타트업의 소자본·소인력 창업을 가능하게 한 점이 공통 특징임.
- 특히 한국은 AI·로봇·양자 분야에서 5개사가 선정 — 전년(3개사) 대비 역대 최다. 이 중 경기도 기업이 **안산 에이로봇(A-Robot)** · **성남 비트센싱(bitsensing)** 2곳임.
- 특히 VESSL AI는 전년 C4IR Korea의 Korea Frontiers 참여기업으로, 금년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에 선정되며 **C4IR Korea 지원 성과가 글로벌 공식 트랙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임.

기업	분야	핵심 내용
A-Robot 경기·안산	휴머노이드·서비스로봇	인간과 안전하게 공존하는 휴머노이드·서비스 로봇
bitsensing 경기·성남	AI·레이더 센싱	차량·교통·헬스케어용 레이더 센싱 솔루션
RLWRLD	피지컬 AI·로봇	로봇의 물리환경 인지·조작 파운데이션 모델
SDT	양자·엣지컴퓨팅	양자컴퓨팅·센싱 및 엣지컴퓨팅·IoT 하드웨어
VESSL AI 주목	AI 인프라·GPU 클라우드	전년 Korea Frontiers → 금년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 선정

▶ 경기도·한국 시사점

경기도 기업 2곳(에이로봇·비트센싱)의 선정은 **도내 딥테크의 국제 경쟁력**을 보여준다. 'AI가 소자본·소인력 창업을 가능케 한다'는 흐름과 맞물려, 도내 딥테크 발굴·육성과 **글로벌 투자유치(IR) 연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 WEF, Meet the 2026 Technology Pioneers · 이뉴스투데이(경기도 발표)

IV C4IR Korea 참가 동향

C4IR Korea(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국내 유일의 WEF 공식 파트너 센터)는 C4IR 글로벌 네트워크 가운데 **최초로 한국 스타트업 단독 세션**(“Strengthening Partnerships: C4IR Korea & Korean Innovators”)과 **Korea Night**을 운영함.

- **WEF 핵심 인사의 직접 참여** — 한국 단독 세션에 WEF 스타트업·혁신가 커뮤니티 담당 임원 베레나 쿤(Verena Kuhn)이 패널로 참여하고, Korea Night 개최사는 WEF 총괄임원 슈테판 메르겐탈러(Stefan Mergenthaler)가 맡음. 이를 통해 한국 딥테크에 대한 WEF의 관심을 확인함.
-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접점** — Korea Frontiers 참여기업 등 국내 혁신기업이 글로벌 투자자·다국적 기업·WEF 혁신가 커뮤니티와 직접 교류함.

※ 현장 사진은 참석자 초상권 확인이 되지 않아 대외 공표본에서 제외하였습니다.

V 경기도·한국에 대한 시사점

① 글로벌 지식 자산화

다보스 의제(대규모 혁신·기술 격차·글로벌 기술지형)는 경기도 정책기획·기업지원의 시사점이 된다.

② 딥테크 육성 기준

프론티어 진입 기업 모델(AI·로봇·센싱)은 도내 딥테크 발굴·육성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③ 네트워크 활용

WEF 글로벌 네트워크는 경기도 기업지원의 글로벌 채널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

VI 출처

- 1 WEF 보도자료 — *Summer Davos Concludes in Dalian with Call to Scale Innovation into Growth, Jobs and Competitiveness.* [weforum.org](https://www.weforum.org)
- 2 CGTN — *AI at the center: Key takeaways from Summer Davos 2026.* news.cgtn.com
- 3 WEF — *Meet the 2026 Technology Pioneers.* [weforum.org](https://www.weforum.org) · The AI Insider. theaiinsider.tech
- 4 데일리안 — C4IR Korea, 다보스서 한국 스타트업 단독세션·‘한국인의 밤’ 개최. dailian.co.kr
- 5 이뉴스투데이 — 경기 스타트업, 다렌서 세계 혁신가와 글로벌 시장 공략. enewstoday.co.kr

작성·검토 방법

본 보고서는 2026 하계 다보스포럼의 공식 자료, 현장 운영 내용, C4IR Korea의 주요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 기반 다중 검토 절차를 활용해 주요 사실관계, 의제 해석, 시사점 도출 내용을 교차 점검하였음. 특히 행사 개요, Korea Session·Korea Night 운영 성과, Korea Frontiers 기업 지원 내용, 향후 후속 활용 방향에 대해 복수의 검토 관점으로 오류 가능성을 없애고 보고서의 일관성과 활용도를 높였음.